



7일부터 16일까지 나인갤러리에서 열리는 김25작가의 개인전에서는 텍스트가 만들어낸 색다른 조형미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제12회 서암전통문화대상을 수상한 조병연 화백.

텍스트가 만든 일렁이는 바다·역동적 파도

김25 작가 '펼쳐진 조우' 전...7~16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
색·형상·글씨로 바다 묘사 독특한 조형미...9월 '키아프'도 참여

'반전'을 감추고 있는 작품을 만났을 때 관람객들은 즐거워진다. 그림 감상이 순간의 스킵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까지 떠올려볼 수 있어서다.

아마도 7월 한여름,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 들어서면 이들이라면 다들 먼저 "시원하다. 여름에 어울리는 전시다" 한마디 할 듯하다. 전시장에 푸른빛, 회색빛, 붉은빛으로 일렁이는 바다와 역동적인 파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솟구쳐서 부서지는 파도는 확 다가가 안기고, 잔잔한 바다는 생각에 잠기게 한다.

반전은 이제부터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림 속 파도와 물결을 이뤄내는 건 깨알같은 글씨들이다. 하얀 색으로 쓰인 필기체 영문 글씨는 독특한 조형성으로 '그림 속 바다'를 탄생시켰다.

김25(KIM25) 작가 초대전 '펼쳐진 조우: Meet of each other'가 7일부터 16일까지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에 나온 전시작들은 지난 2020년 광주에서 선보였던 작품들과는 결이 다르다. 신작들은 지난해 미국 '미즈마&김25 갤러리' 개인 초대전, 올 두바이 아트 페어에서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번 광주전을 앞두고 국회의사당과 서울 금산갤러리 개인전을 통해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김 작가는 금산갤러리 소속으로 오는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KIAF)'에 참여한다. 올해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불리는 영국 '프리즈'가 참여, 화제가 되고 있는 올해 키아프는

국내의 갤러리와 콜렉터들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로 작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전시 나온 신작은 모두 바다 형상과 텍스트를 결합해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낸 작품들이다. 색과 형상으로 바다를 묘사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촘촘히 쌓아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예전에 한자를 소재로 문자 추상을 했었는데 작업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보면 구름에 점점이 글자의 잔상이 박혀 있는 듯했어요. 그때 하늘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바다로 이어지더군요. 바다는 하늘의 거울이고, 너와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바다를 소재로 작업해보자 싶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고 공감하는 풍경이다. 그에게는 하늘과 바다 모두 과거의 것이 휩쓸려나가고,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였다.

작품 속에 가득 담긴 문장들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허먼 멜빌의 '모비딕', 아르투르 랭보의 시 '영원', 메리 올리버의 시 '파도'에 등장하는 것들이다.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중첩되는 문학작품들이 떠올랐고, 그 느낌을 담아냈다.

라벤더빛 하늘과 보랏빛 다양한 변주의 바다가 담긴 그림엔 '모비딕'의 구절이 담겼다. 죽음이라는 파국으로 마무리된 인간의 광기와 욕망의 덧없음이 느껴지는 풍경이다. 청제자와 사투를 벌이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노인의 쓸쓸한 모습이 담긴 작품도 있다. 물론, 굳이 텍스트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작품 자체가 만들어내는 조형성과 일렁이는 리듬감이 마음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석해도 흥미롭다. 얼핏 노을과 일출이 연상되



김25 작가

는 '붉은 바다' 역시 그 경계를 넘어 '색의 바다'와 함께하는 자기만의 감성을 길어올릴 수 있다.

구상이 강세인 지역화단에서 30년 가까이 추상에 몰두하며 '색면추상' 작업을 해온 그가 풀어낸 색의 향연은 이번 전시작들에서 돋보인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색의 배합'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신선함을 준다. 그는 색을 쌓는 과정도 중요시 여겼지만 무엇보다 '글자 자체만으로' 물결과 파도의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질감을 두텁게 하고 사실적 묘사를 통해 바다와 파도를 표현한다면 '텍스트'를 접목한 제 작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색은 '판타지'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바다 대신, 그리다보면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새로운 색의 조합에 관심이 많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최근작인 'Wave Sorry' 시리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성찰이 주제로 다른 작품에 비해 파도가 격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됐다.

김허경 미술평론가는 전시도록에 "김25는 선과 색이 중요한 회화 요소임을 강조함으로써 곡선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통해 선의 자율성과 색채의 해방을 시도했다"며 "그의 캔버스엔 지적유구와 탐구정신, 내약함을 담은 절제된 문자들이 일렁이는 파도와 함께 울동한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아트 마이에미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병연 화백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 화천그룹 후원 상금 3000만원...8일 시상식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그룹이 후원하는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5일 제12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로 한국화가 조병연 화백을 선정, 발표했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화, 국악, 무용, 공예, 기악 등 전통문화 5개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상이다.

수상자 조병연 화백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향후 작품활동에 대한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8일(오후 1시)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해남 임하도에서 작품활동과 수목화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조 화백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 후 30여년간 전업작가로 활동중이다. 조 화백은 지리산, 월출산 등 남도의 아름다운 산하와 풍경을 담은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지난해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전에서 선보인 10m 대작 '지리산'은 수목의 매력에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조 화백은 전통적 먹과 한지로 대변되는 수묵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으며 중국, 태국 등 해외교류 전시를 통해 우리의 한지와 수묵을 알리는 작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조 화백은 앞으로 남도 진경산수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조 화백의 현재까지의 창작활동과 전통회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남도 문화의 얼을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 기대되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로는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및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한 김홍희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관 화천 창업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예향에 걸맞는 호남지역 전통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화천그룹이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 전통문화대상 시상,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학술및연구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화가 박종석·박문종, 국악인 주소연, 공예가 최석현 등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예술인들이 서암전통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국악문화학교·어린이국악교실

빛고을국악전수관(광주 서구 풍곡로 182)이 제79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판소리·가야금·대금·가야금병창·장고·고법·해금·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 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어린이국악교실 강좌로 가야금과 해금 2개 강좌가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과정별 선착순 20명이며 오는 7월 29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는 지금까지 2만 3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관계자는 "국악교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무더위와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생활속에 우리의 전통음악을 배워보며 심신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첼리스트 오선미 정년퇴임 음악회

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오선미(사진)가 오는 9일 오후 7시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정년퇴임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오선미의 첼로 독주회로 40여 년 간의 음악생활을 마무리하는 무대다.

오선미는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음악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승희, 김봉, 이동우 교수를 사사했으며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오선미는 지난 1981년 광주시립교향악단 학생단원으로 입단해, 비상임 준단원, 정단원을 거쳐 1986년부터 상임단원으로 활동했다. 40년 간 활동을 이어온 오선미는 2번의 독주회를 열었고 한 마음양상를 단원으로 실내악 연주와 국내외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했다.

이날 공연은 차이코프스키 '늑탄'을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40번', 슈만 '피아노 4중주' 연주가 이어진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리와 비올리스트 최미연, 그리고 한국반주협회 정회원인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이유정이 함께한다. 세사람 모두 오선미와



함께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깊은 친분을 맺어온 동료들이다.

오선미는 "퇴임 후 쉬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 중이다"며 "40여년 간의 광주시립교향악단을 마무리하고 나니 시원스럽다"고 말했다. 전시 초대. 문의 010-8448-639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성구락부' 뉴웨이브 국악무대 9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민요를 토대로 한 뉴웨이브 국악무대가 국악인 김산옥의 사회로 펼쳐져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운영하는 이번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창작 무대는 경성구락부(사진) '신(新)청년' 무대로 꾸며진다. 오는 9일 오후 3시이며 이번 무대 캐치프레이즈는 "조선 '민중'의 음악이었던 민요를 현대 '대중'인 당신에게 전승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디스코 장르로 새롭게 구성된 '사실난봉가'를 비롯해 퓨처하우스 장르의 '태평가', 얼터너티브 락 사운드 '궁조댕기'가 펼쳐진다. 또한 R&B에 장부 타령을 엮은 '신창부거리', 락블루스로 편곡한 '까투리타령', 디스코펍크의 후크송으로 탄생한 '비나리'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

이날 출연진은 9인의 빅밴드 구성으로 음악감독 한승민과 민요 소리꾼 양진수 외에 연주에는 가야금 문세미, 거문고 박소정, 해금 소운선, 피리·태평소 김은경, 일렉기타 박성진, 베이스 김기우, 드럼 이주영이 출연한다.

2001년 창단된 '경성구락부'는 민요를 기반으로 뉴웨이브 국악을 선보이는 단체다. 지난 2021년 'MBN 조선판스타'에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무대를 매개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광주한글춤연구회 '오래 새로운'' 공연이 열린다. 문의 062-670-8502.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